본당과 전례

♣성탄 판공 성사표 제출

브라질 성당이나 여행 중 또는 11월 중에 고해성사를 보신 분들도 성사표를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면 판공성사로 기록됩니다.

♣미사 시간 안내

일 자	시 간	미 사
12월 31일(화)	22:00	송년 미사
01월 01일(수)	09: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0:30	

1일(수) 버스 운행은 평소 주일과 같은 시간에 운행합니다.

♣평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년말과 년초에 평일 미사를 아래와 같이 임시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주보 표지의 미사 시간을 참조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2월 26일(목)~1월 17일(금)

요일	월	화,수,목	금	토
미사시간	07:00	19:00	07:00	07:00 19:00

♣성당 사무실 휴무 안내

일시 : 12월 31일(화)~1월 4일(토)

♣2020년도 교무금 신립

교무금은 하느님 제단에 바치는 선물이며 은총으로 사는자의 감사스럽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2020년도 교무금을 성당 사무실에 신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임원 명단 제출

모든 단체(임원 변동이 없는 단체도 포함)는 내년도 임원 명단(직책, 집과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E-Mail)을 성당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교적 변동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동되었을 경우나 자녀의 혼인 또는 기타 사유로 분가하였을 경우에 성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은 신자 개인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과 세례, 견진, 판공, 혼배 등의 성사관계 등을 기록하여 세속의 호적과 같은 구실을 하며 기록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오늘의 모임

▶**오늘 점심 봉사**: 오늘은 점심이 없습니다.

▶**1월 1일 점심 봉사** : 안나회
본당에서 떡국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체와 행사

♠**영화 상영** : 2020년 1월 2일(목) 9시 극장
은빛대학 문화 행사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모 신심 미사**
일시 : 2020년 1월 4일(토) 7시

♠**환자봉성체**
일시 : 2020년 1월 14일(화) 오전
환자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신앙학교**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19일(주일)
장소 : Hotel Estância Pilar - Ribeirão Pires

은빛대학 교사 모집

2020학년도를 함께 할 은빛대학 교사를 모집합니다.(학기 중 매주 목요일 봉사)
문의 : 이 마리노아 수녀님 2128-0409

2020학년도 신망애 장학생 신청

대상 : 2020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한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청 : 2020. 01. 05(주일) 12시까지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성당 사무실

예수 살기 성경 통독 피정

(한글 신 구약 성경 완독)
일시 : 2020년 1월 2일(목)~1월 31일(금)
장소 : 작은 예수회 - R. Javaes 197
대상 : 성경을 읽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려우신 분
성령의 기운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
공동체 사정상 선착순 12명으로 제한합니다.
문의 : 김 그라시아 수녀 94372-3861

솔뫼 (제 2-742호)

천주교 브라질 성 김대건 한인 성당
Paróquia Pessoal Coreana São Kim Degun
Rua Nair de Teffé 147, Bom Retiro, 01128-040, São Paulo, SP, Brasil

www.pskd.org.br
paroquia.cb@gmail.com
Tel.: 55-11-2128-0401/2/5
Fax.:55-11-2128-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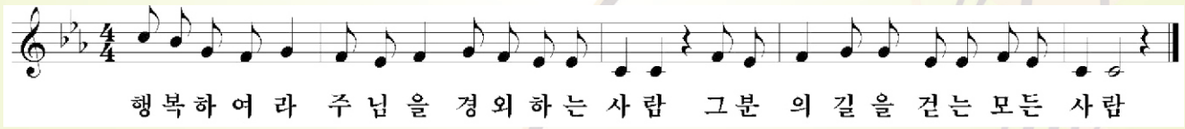
2019년 12월 29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2세대 3,373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18명 입니다.

성가번호 ♬입당 114 ♬예물준비 216, 511 ♬영성체 165,178 ♬파견 102

제1독서 집회 3,2-6.12-14 **제2독서** 콜로 3,12-21 **복 음** 마태 2,13-15.19-23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절약하고, 우리의 환경도 정화시켜 줍니다.

Reduzir o lixo também economiza o custo na coleta. Limpa o nosso ambiente.

요일	주일	월	화(31일)	수(1일)	목	금	토
미사 시간	07:00 09:00 10:30	07:00	22:00	9:00 10:30	19:00	07:00	07:00 19:00

◈주임신부:조성광(바오로) 2128-0414
◈보좌신부:강요셉(요셉) 2128-0418
◈분원장수녀:황프란치스 2128-0427~8(수녀원)
◈유치원:2128-0446
◈대건한글학교:2128-0422
◈위령봉사회:99956-0215, 97353-5544, 99803-8838
◈복지위원회:99679-9403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2-6.12-14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2-21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15.19-23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문화 산책

자린고비[1] 이야기

옛날 옛날 한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중에 구두쇠, 노랑이[2] 중에 노랑이 인 자린고비가 살았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부채를 들고 고개를 흔드는 자린고비를 보고 부인이 물었어요.

"아니, 영감. 지금 뭐 하는 거에요?"

"더워서 부채질 하고 있지."

"그런데 왜 부채는 가만히 두고 고개만 흔드세요?"

"그거야 부채가 닳을까 봐 그러지!"

다음날, 부인이 장에 가서 굴비 한 마리를 사왔어요. 굴비를 본 자린고비는 천장에 굴비를 매달았어요.

"아니, 영감. 굴비를 왜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냥 먹으면 한끼뿐이지만,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매끼 굴비를 먹는 거나 다름 없지 않소! 잘 보라고. 밥 한 번 먹고, 굴비 한 번 보고. 자 너희들도 해보렴."

자린고비의 자식들이 따라 했어요.

"밥 한 번 먹고, 굴비 한 번 보고, 굴비 한 번 보고…"

"이 녀석아! 굴비 닳으니 한 번만 봐!"

"아이고, 영감…"

어느 날, 자린고비가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추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단 말이야. 도대체 누가 고추장을 훔쳐가는 거야."

그 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고추장 위에 앉았어요.

"옳거니, 저 파리가 범인이었구나!"

자린고비는 파리를 쫓아갔어요.

"파리, 이 놈! 내 고추장을 썩 내놓아라!"

파리를 덥석 잡은 자린고비는 파리의 뒷다리에 묻은 장을 빨아먹으며 말했어요.

"감히 내 고추장을 가져가? 내가 내 고추장을 조금이라도 뺏길 것 같으냐!"

자린고비의 아들이 커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 며느리도 유명한 자린고비였답니다.

어느 날, 저녁을 하기 위해 며느리가 생선을 사러 갔어요. 며느리는 생선을 만지작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오늘은 생선이 좋지 않네요? 다음에 올게요."

며느리는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가 생선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가마솥에 넣고 씻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마솥의 물로 국을 끓이는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저녁 식사하세요."

"이게 왠 국이냐?"

"제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만지고 씻은 물로 국을 끓였지요."

자린고비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화를 냈어요.

"그 손을 물독에 넣어 씻었더라면 두고두고 고깃국을 먹을 것을!"

다음 날, 며느리가 점심 상을 차렸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자린고비가 상을 보자 간장이 종지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자린고비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간장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아버님, 이렇게 간장을 가득 담으면 보기만 해도 짜서 먹지 않게 되어, 간장을 아낄 뿐만 아니라 숟가락으로 긁지 않아도 되니 숟가락과 그릇까지 아낄 수 있답니다."

자린고비 시아버지는 현명한 며느리를 얻었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린고비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편)) 편집.

각주1: 매우 인색한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비슷한 말로 수전노, 구두쇠가 있다.

각주2: 구두쇠의 순 한국말

♣ 한글학교 우리문화팀 편집 ♣